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 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4년 2월 18일(주일) 제1479호

Bye Bye 플라스틱!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일상에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이 지난 2월 14일 시작됐다. 3월 31일(주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캠페인 기간에 각자의 일상에서 '탈(脫) 플라스틱'을 실천한다. 사회선교본부 '생명과 환경팀'에서 제공하는 e-book 속 매뉴얼(QR코드 참고)을 따라 개인과 가정, 일터에서 발생시킨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인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을 한다.

이번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은 '성찰하기'와 '실천하기'로 진행된다. 2월 14일(수)부터 3월 7일(목)까지는 '성찰하기'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내 일상의 플라스틱 사용량은?'을 주제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인한다. 개인과 가정이 발생시킨 플라스틱 쓰레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하면 된다. 3월 8일(금)부터 3월 30일(토)까지는 '실천하기'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를 주제로 실제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한다. 장바구니 사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을 적극 활용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다음 사진으로 찍어 기록하면 된다.

4월 7일(일)까지 '성찰하기'와 '실천하기' 기간에 찍은 사진을 간단한 소감문(A4 한 장 이내)과 함께 이메일(onnuri.lent@gmail.com)로 제출하면 온누리교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와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차세대를 대상으로 그림 대회 및 전시회도 개최한다. 4월 14일까지 창조질서 회복 관련 그림을 그려서 이메일(onnuri.lent@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그림은 A4 용지 한 장 크기로 그리면 된다. 차세대가 제출한 그림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 전시한다.

더 자세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 안내 사항은 사회선교본부 생명과 환경팀에서 제작한 e-book을 참고하면 된다(QR코드 참고).

바이 바이 플라스틱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3월 31일까지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 4'

헌혈캠페인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가 3월 31일(부활절)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를 포함해서 전국 147개 교회와 5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도 1,138명이 헌혈을 시도했고, 710명이 완료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54명이 참여했다(2월 14일 기준).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헌혈하기 전에 '온누리교회' 또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혀야 생명나눔의 기적 인원으로 집계된다(한마음혈액원만 해당).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2714-02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소개하고, 이재훈 위임목사의 저서 〈방황의 시대, 방향이 되다〉를 선물로 보내준다.

사진은 지난해 순장영성수련회 '영혼을 돌보는 순장'

'2024 순장블레싱(순장영성수련회)'

3월 1일 오전 10시 서빙고 본당

'2024 순장블레싱(순장영성수련회)'이 3월 1일(금)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순장블레싱은 온누리교회 순장 이상 리더십들을 격려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섬김과 헌신을 독려하는 축제다. 장로, 공동체 총무, 다락방장, 순장 등 온누리교회 리더십이 총출동한다.

이번 순장블레싱은 공동체 특순,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대표기도, 이재훈 위임목사 메시지, 순장 격려 영상, 패널토의, 점심식사 및 이벤트, 강의,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임명식, 온누리 순장 어워드, 순장 선서, 기도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순장블레싱에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린 자녀들(36개월~10세)을 위한 탁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570-7356

/ 홍하영 기자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개강예배

온누리공동체가 2월 18일(주일)부터 3월 23일(토)까지 2024년 상반기 공동체 개강예배를 드린다**(일정 10면 〈표〉 참조)**. 2024년 상반기에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행사가 이어진다.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3월 1일 순장블레싱, 3월 25~29일 고난주간 심야예배, 5월 13일 믿지 않는 부모 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5월 15~16일 러브소나타 효고, 6월 19~21일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 등이 막 오른다. / 김다애 기자

故 김사무엘 목사 소천 20주기 추모예배

故 김사무엘 목사 소천 20주기 추모예배를 2월 20일(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드린다. 추모예배는 조대식 장로 대표기도, 박종길 목사 설교, 추모사, 유족 인사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故 김사무엘 목사는 1981년 C&MA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1995년 7월 온누리교회 선교 목사로 부임했으며, 2004년 2월까지 온누리교회 선교사역을 총괄했다. 2003년 이라크 개척사역을 하던 중 혈액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2004년 2월 21일 하나님 품에 안겼다**〈김사무엘 목사 추모 글 3면〉**.

/ 홍하영 기자

특별기고_ 로잔 운동의 성격과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전망 4면
어린이신문_ 가장 좋은 세 가지 신앙교육 방법 6면
Life_ 멘토가 멘티에게 8면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라

사도행전 3:11~26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게 진정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사람들이 만들고 추구하는 것에는 실상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물결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입니다(16절).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에 치우쳐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악을 떠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롭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를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 계획을 두 단계로 이루십니다. 첫째,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회개와 죄 씻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19절). 둘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단계입니다(21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될 때까지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분이 진정 새로워지는 길이요, 그분이 진정 만물이 회복되는 길이요, 그분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나타난 인간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법으로 재판했고, 재판했던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오히려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13~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와 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회개를 통해 새로워지지 않으면 멸망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모두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악인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가룟 유다의 탐욕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군중들의 무지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군인들의 잔인함도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인간의 죄악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면,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악 가운데 처해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죽이는 이들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이는 죄와 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입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회개를 통해 새로워지지 않으면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회개' 그리고 '죄 씻음'

회개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죄로부터 의로,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인간의 생각과 의지,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려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돌이킬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지만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 회개입니다. 회개와 더불어 죄 씻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멸망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회개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멸망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생명의 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멸망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와 악 가운데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인간의 각성과 결단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남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 생명과 영적 생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생명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습니다. 영적 생명은 영원한 청춘입니다. 영적 생명이 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때가 임하였다"고 선포합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회개와 죄 씻음이 가능해졌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게 진정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김사무엘 목사 소천 20주기

"선교는 목숨 값이다!"

선교 스승 故 김사무엘 목사님을 기억하며

노규석 목사
(온누리M센터)

김사무엘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20년이 지났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선교사이자 너무나 그리운 스승을 기억하며 이 글을 적는다.

故 김사무엘 목사님은 1995년부터 2004년 2월 소천하시기까지 10여 년 동안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을 교육하셨다.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수많은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양성하신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의 스승이셨다. 故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온누리교회 오시기 전에도 수년 동안 일본 교회들을 개척하셨고, 중국과 한국에서 북한사역 및 BEE Korea 등의 설립에도 크게 기여하신 분이다.

故 김사무엘 목사와 이라크

故 김사무엘 목사님은 2003년 7월, 온누리교회 이라크 아웃리치팀을 인솔해서 이라크 남쪽 바스라부터 바그다드까지 방문했다. 그 팀에는 신기섭, 김태완, 요시하라 목사 등이 동행했다. 당시 선교사님은 에젤선교회의 이라크 선교를 위한 '초콜릿 후원금'을 가지고 바그다드를 방문해서 개척 중인 바그다드 연합교회를 지원하셨고, 현지 교회들로부터 이라크 신학교 설립에 대한 요청을 받으셨다.

2003년 8월, 故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 "이라크 개척팀을 만들어서 김사무엘 목사님을 도우라"는 명령을 주셨다. 당시 대학청년부 전도사였던 나는 선교에 헌신한 여섯 명의 청년과 함께 이라크 개척팀을 구성하고, Acts29비전빌리지에서 故 김사무엘 목사님의 지도 아래 합숙 훈련을 받았다.

2003년 9월 18일, 故 김사무엘 목사님과 내가 선발대로 이라크로 출국했다. 인천공항에 배웅을 나온 임신한 아내와 청년부 교역자들의 기도를 받으며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2살 된 큰딸이 "아빠 가지마!"라고 나를 불렀다. 앞서가시던 故 김사무엘 목사님이 "뒤돌아보지 말게나"라고 묵직하게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나는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구나'라고 가슴 깊이 느꼈다. 그동안 수많은 선배 선교사님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를 향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던 것이다.

이라크에서 예배와 사역 그리고 훈련

故 김사무엘 목사님과 내가 요르단에 도착해서 육로로 이라크 바그다드로 들어갈 차편을 구했다. 그때 요르단 한인 교회에서 만난 한인 기업의 지사장님이 바그다드에서 요르단으로 육로로 나오면서 알리바바(노상 강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왔다며 "그곳은 무법천지로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故 김사무엘 목사님은 바그다드 현지 교회들과의 약속이 있기에 들어가자며 당시 우리가 가진 선교헌금을 4개의 봉투에 넣어 신발 깔창 아래에 넣고 바그다드행 택시를 탔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바그다드 장로교회'와 '바그다드 연합교회' 두 곳을 도왔다. 동시에 10월 첫 주부터는 바그다드 장로교회의 공간을 빌려 한인들을 위한 '이라크 한인연합교회'를 시작했다. 우리 개척팀원을 포함해서 20여 명의 한인들과 함께 40여 명의 이라크인이 첫 예배를 드렸다.

1980년 이후, 이란-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경제봉쇄 등으로 20여 년 동안 이라크인들은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기에 한국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라크 성도들의 영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故 김사무엘 목사님은 이라크인들을 위해 처음부터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설교하시면서 예배를 섬겼다. 많은 이라크인 성도들이 한인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故 김사무엘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많이 요청했다.

당시 에젤선교회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개척을 도왔던 현지 바그다드 연합교회에서는 주중에 영어교실, 컴퓨터교실, 어린이 무용교실 등을 시작했다. 또 NGO 사역의 일환으로 무너진 초등학교를 보수하고, 난민촌을 방문해 식량과 겨울 난방기구 등을 배포했다.

故 김사무엘 목사님은 현지 교회들의 긴급한 필요를 도와주면서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 현지인 선생님을 초빙해서 아랍어를 배우셨다. 60대 목사님과 20~30대의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함께 아랍어를 배웠는데, 목사님의 열심을 보면서 크게 도전을 받았다. 우리 개척팀은 아침마다 목사님과 함께 QT와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아랍어 공부와 함께 현지 교회 지원 사역과 현지인 가정심방을 지속했다.

故 김사무엘 목사의 헌신이 피워낸 선교지의 열매들…

故 김사무엘 목사님이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다. 2003년 11월 사모님을 이라크로 모시러 가면서 허리 치료를 받고 돌아오시겠다며 한국으로 떠나셨다. 목사님은 한국에서 허리 치료를 위해 병원 검사를 받던 중에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고, 정밀 치료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가셨다.

12월 초 미국으로 떠나시기 전날, 故 김사무엘 목사님이 바그다드로 전화를 주셔서 이라크 개척팀 청년 선교사들을 하나하나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도 12월 중순에 사모가 둘째 출산을 할 때는 꼭 옆에 있는 게 좋으니까 잠시 한국에 들어오라는 당부를 남기셨다. 그것이 故 김사무엘 목사님과의 마지막 인사였다.

故 김사무엘 목사님은 내가 정말 존경하고, 믿고, 의지했던 선교사님이셨다. 그래서 종종 '왜 건강하시던 김사무엘 목사님께 갑작스럽게 혈액암이 생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열화우라늄탄 사용으로 인해 이라크인들 사이에서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만약 故 김사무엘 목사님이 이라크에 가지 않으셨다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담당하시지 않았을까? 존경하는 선배를 향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아쉬움으로 만약을 떠올려 본다.

故 김사무엘 목사님이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음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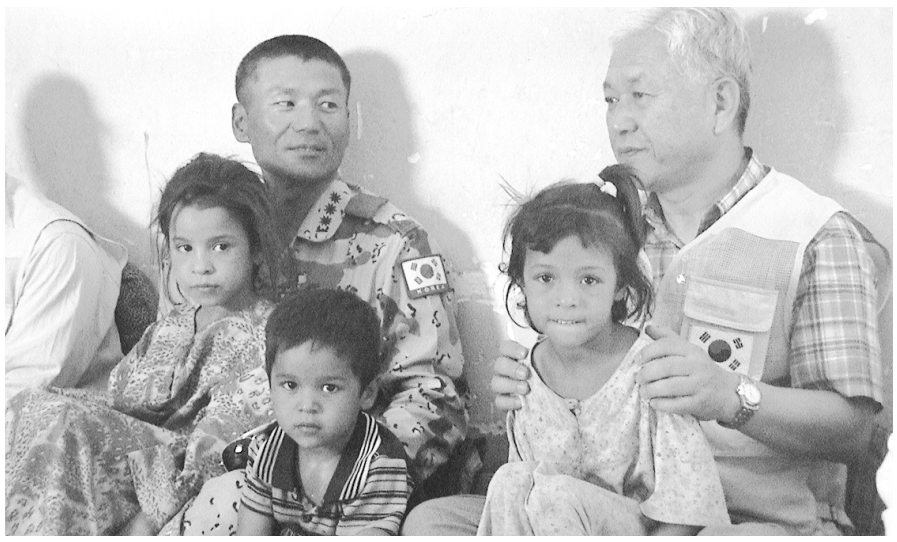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20년 전 바그다드에서 故 김사무엘 목사님을 만났던 바그다드 연합교회의 말라드 형제는 횃불트리니티신학교와 서빙고온누리교회 온누리M미션 아랍어 예배 담당 전도사로 섬기다가 이라크로 돌아갔다. 그는 이라크 북부 에르빌(Erbil)에서 IAC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 아웃리치팀 멤버였던 김태완 목사, 이라크 개척팀 멤버였던 나와 김도균 목사는 아부다비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중동선교를 이어 나갔고, 개척팀원 중 대학생이었던 김시은 자매는 장기선교사가 되어 이집트에서 10년 넘도록 사역 중이다. 또 다른 개척팀 멤버들도 선교사, 사모, 평신도 리더로 헌신해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선교는 목숨 값이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선교지에 복음이 심기고,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운다. 故 김사무엘 목사님의 헌신은 20년이 지난 오늘도 그분께 훈련받은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을 통해 선교지 곳곳에서 열매 맺고 있다.



선교에 목숨을 바친 故 김사무엘 목사의 헌신과 희생이 선교지 곳곳에서 열매 맺고 있다.

로잔 운동의 성격과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전망

서울 제4차 로잔대회에 바라는 점 (2)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명예교수)

"올해는 로잔 운동의 태동 50주년이 되는 해다. 서울 제4차 로잔대회가 로잔 정신을 재확인하고, 총체적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동력과 청사진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서울 제4차 로잔대회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 세계 및 한국 교회 선교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촌을 휩쓸었다. 한국 교회는 지난 3년 동안(2020~2022년) 코로나19로 비롯된 비대면 예배로 인해 성도 수가 많이 감소했다. 2023년부터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再開)되었다. 한국 교회는 예배의 본래 모습인 대면예배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움츠려진 성도들의 심령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붙여야 한다. 이 상황에서 2023년 2월 8일 채플에서 시작해 2월 24일까지 지속돼 회개, 기도, 찬양, 간증 모임으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애즈베리 부흥'(Asbury Revival)이 의미가 깊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 지구촌에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징표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이번 서울 제4차 로잔대회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라는 마닐라 선언을 전 지구촌과 한국 교회에 구현하는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세계 교회가 한국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고, 21세기 중반을 향해 가는 세계 선교의 불길이 다시 새롭게 점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 영역'의 구체적 설정 필요

1974년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 1989년 마닐라 선언(The Manila Manifesto), 2010년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 Town Commitment)과 같은 로잔 운동의 신학적 문서들은 상세한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을 담고 있다. 그런데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면서 개인과 가정, 교회가 제한된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을 거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해 어디에, 어떻게 투여할 수 있는지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 투여함으로써 본래 복음 전파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는 이것이다. 2013년 WCC 부산대회에서는 사랑과 정의 실현을 위해 전 세계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생태계, 인종 문제 등 유엔(United Nations)조차 모두 다루지 못하는 83가지 이슈를 위해 교회가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전도 종족 영역 '10/40 창'에서 종사하는 선교사들도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로잔 운동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세계복음화를 완수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래야 한다. 이 이슈에 관해 우려가 불식되도록 서울 제4차 로잔대회는 보다 깊은 토의와 협의를 이루어야 한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북한 주민 및 탈북민 인권 개선 위한 관심 표명

독일 EKD(독일 개신교 연합)가 동성애를 허용하자 독일의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는 사도적이고 보편적이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지난 2010년 케이프타운 대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 아니라 대회 기간 중 '성: 창조, 깨어짐, 진리와 은혜'(Sexuality: Creation, Brokenness, Truth and Grace)라는 주제로 모인 모임(session)에서 최종 형태의 발제가 있었다. 케이프타운 어드벤스 페이퍼 저자들(Cape Town 2010 Advance Papers)은 정죄 일색의 기존 접근 방식과 달리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이해 및 대처에서 '변화'가 필요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동성애 이슈에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다가오는 서울 제4차 로잔대회에서 한국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견해(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라는 진리의 명제, 동성애자들에 대한 은혜의 명제, 목회적 돌봄 및 전환 치료와 상담에 대한 심리상담적 대책)가 충분히 개진되기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북한 주민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 개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한다.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북한 주민 및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에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북한 정부와 중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위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WCC 부산대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생명에 대한 복음주의적 선언

오늘날 21세기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자연 생태계, 태아, 반려동물 등에 요구된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자연 생태계는 인간이 사는 기본적 주변 환경이다. 환경이 파괴될 때 기후 이변이 생겨서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키고, 시베리아 동토와 빙하가 녹아내릴 때 그 속에 있던 박테리아가 인간 삶에 침투해 각종 질병(사스, 코로나19 등 인수공통 전염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피해, 생태계 파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는 때에 지구촌의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낙태는 서구 사회에서 허용되는 필요악이긴 하나, 귀중한 태아의 생명은 천부적인 것으로 인간이 좌우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식용 개는 서구 사회에서 야만으로 취급받는다. 이번 한국 국회에서 '식용개 금지법'을 통과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개는 인간에게 가장 친밀한 반려동물로서 그 생명이 귀중하다. 하지만 짐승과 인간의 종(種)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님 형상인 인간과 인간 반려자인 짐승을 무차별적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동물주의적 종(種) 무차별 반휴머니즘'(animalistic species non-differendtiated anti-hamanism)은 거부해야 한다.

로잔 정신 재확인하고, 총체적 복음 청사진 제시하길!

로잔 운동은 제도화되고 동력이 상실된 WCC의 에큐메니칼 선교 운동을 대체해서 일어난 20세기의 복음 운동이다. 기독교를 원천(ad fondes)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역동적인 복음 운동이다.

1948년 에딘버러대회에서 창립 때의 성경에 기초한 선교 정신을 가졌던 WCC는 1960년대 들어와 본래 모습에서 일탈해 변질되었다. 종교 간 대화(Inter-Relgious Dialogue)와 선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938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에서 WCC를 조직하기 위해 모여 열린 첫 번째 모임에서 작성한 'WCC 교리 헌장(WCC Basis)'은 오늘날의 변질된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이 헌장은 다음과 같다.

"세계교회협의회(WCC)란 성경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친교(Fellowship)다. 그러므로 세계교회협의회는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한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이 헌장은 WCC 첫 모임에서 영국 국교회의 윌리엄 템플(Willian Temple)이 대주교, 비서트 후프트(W. A. Vissert Hooft)가 임시위원회의 대표 총무로 선출되어 작성한 것이다. 비서트 후프트는 WCC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서 1948년부터 1966년까지 초대 사무총장으로 수고한 인물이다. 그는 WCC가 변모하는 1963년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면서 '그리스도 중시적 보편주의'를 역설했다. WCC는 오늘날 선교 모라토리엄, 종교다원주의, 정치적 해방을 구원과 동일시하는 변질된 모습에서 벗어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로잔 운동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WCC처럼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존 스토트가 로잔 언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복음 전파의 우위성 안에서 양자 균형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로잔 언약 5항]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활동이 곧 전도가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이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교리,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필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로잔 언약 6항] '교회의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가 교회의 최우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전도가 최우선이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의 바로 중심에 서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다. … 교회는 하나의 기관이라기보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문화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체제나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마닐라 선언과 케이프타운 서약은 '세계 복음화(World Evangelization)'에 대한 소명과 헌신이라는 로잔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역사적 연속선상에 있다. '사회적 책임'은 로잔 언약에서 단 한 차례 언급되었지만, 마닐라 선언과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여러 번 반복되었다. 로잔 운동에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올해는 로잔 운동의 태동 50주년이 되는 해다. 서울 제4차 로잔대회가 1차 로잔 언약, 2차 마닐라 선언, 3차 케이프타운 서약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전 지구촌을 향하여, 서구 사회를 향하여, 10/40 지역과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총체적 복음을 각 지역에 적합하게 전파하는 새로운 동력과 청사진을 제시하기를 소망한다.

(끝)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성 혁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난 10여 년 사이 "타고난 성별은 바꿀 수 있다",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의 정체성(gender identity)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트렌스젠더가 남자의 성기를 유지한 채 여성 전용 시설을 출입해서 이용하는 것을 업주가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주장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 의해 지지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타고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에 귀속감을 느끼는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 차별금지 사유로 인권위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성적지향(sexual orentation)' 안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2019년부터 자체 공문서에서 성별 표기에 남녀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이라는 구분을 두고 있다. 남녀 양성에 기반해 이루어진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인권위의 모습이다.

사실 타고난 성별에 불쾌감을 느끼고, 다른 성별에 귀속감을 느끼는 성 정체성의 혼란은 젠더불쾌증으로, 상당 기간 정신의학 치료와 상담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전환 수술이나 성별 정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정신과 의사의 진단', '성전환 수술', '미성년자녀가 없고 혼인상태가 아닐 것', '사회적 승인' 등 극히 제한적 조건 아래 성별 정정을 허용했고, 이에 기반해 성별 정정을 위한 내부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인권위는 '미성년의 자녀가 없을 것', '사회적 승인', '성전환 수술'의 요건을 폐지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대법원은 '미성년의 자녀가 없을 것', '사회적 승인'이라는 요건을 폐지했다. 올해 들어 '성전환 수술' 요건도 폐지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성년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정과 신뢰보다 부 또는 모의 성전환 요구를 우선시한 것이다.

또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변경함으로써 공중목욕탕의 여탕(남탕)을 반대 성별의 신체를 유지한 채 이용함으로써 야기될 기존 이용객의 안전, 사회적 혼란이 우려스럽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동성혼 3법안'을 발의했던 모 의원이 2023년 11월 '성별변경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필자는 지난 1월 그 법안의 내용을 알고자 국회로 문의했더니 "아직 발의를 위한 10인을 아직 채우지 못한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뜻밖의 대답에 감사함이 밀려왔다.

생물학적 성별에 귀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젠더불쾌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심적 갈급함 해소를 위한 기도와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젠더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쉽게 해 주고, 나아가 아예 이러한 수술 없이 법적 수용 요건을 더 완화해서 성별 정정을 해 주자는 요구가 우리 사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라는 기독교적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하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우편에서의 통치를 행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신다. 예수님의 이끄심을 통해 연약함을 단련해서 강건해지는 은혜가 오늘도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다.

인위적인 성전환에 필수적인 호르몬 시술은 많은 부작용을 동반한다. 하지만 호르몬 시술은 의료기관에 큰 재정적 이익을 주기에 담당 의료기관의 고도의 윤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윤리보다 재정적 이익 때문에 심지어 10대에 대해서도 정신과 치료보다 적극적인 반대 성별의 호르몬을 처방한다.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부모에 대해 일부 주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자녀와의 분리 조치까지 행해지고 있다(제프 마이어·브랜든 쇼월터, 류현모 역, 〈젠더이념의 거짓 드러내기〉, 온라인북 무료 다운로드 가능(moseca.org). 미 서부의 주에서는 여성 전용 스파, 화장실에 생물학적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트랜스젠더라 주장하며 입장할 때 이를 거부하면 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이 예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도전을 일으키는 문제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봤고 갈급했던 마음이 온전히 채워졌어요. 내가 틀렸구나, 그동안의 일들이 성의 문제가 아닌 내면의 문제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트랜스젠더에서 호르몬 시술을 중단하고, 원래의 성별로 복귀한 한 전도사의 간증이다. 무신론, 유물론적 사회주의, 급진적 젠더이론의 거센 공격으로 천부인권과 자연권 사상에 기반했던 인권법 체계에 변형이 야기되면서 성적 방종, 성별 변경의 자유 등 타락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범사에 감사하며, 혼인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 사상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 깨어있는 유권자들이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달력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평가를 할 수 있게 기도로 나가길 소망한다.

나아가 이 시대가 천부인권 사상에 기반한 인권법, 남녀가 상생하는 창조 섭리에 기반한 양성평등, 성 정체성의 혼란이 치유되는 미래로 변화되는 시점이 되기를 바란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연약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이들의 심령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함으로써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상현 집사
(강남E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환경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역할

왜 '바이 바이 플라스틱'인가?

환경오염의 주원인 중 하나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의 다양성과 생물자원 보전에 악영향을 준다.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사회선교본부 '생명과 환경팀'에서 올해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부제를 '바이 바이 플라스틱'으로 선정하고 일상에서 탈(脫) 플라스틱을 실천하기로 했다.

플라스틱은 '열가소성'과 '열경화성'으로 분류된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은 그릇 용기나 도구,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섬유 등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들이 햇빛, 열, 세탁 과정, 제조 및 사용 등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에서 분해돼 5㎜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이 된다.

바로 그 미세 플라스틱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수를 오염시키고, 이 물을 마신 동물과 조류 및 해양 생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몸에 자신도 모르게 축적된다. 우리가 자주 식용하는 해산물뿐 아니라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에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고, 심지어 피부 노출과 공기 흡입을 통해서도 인체에 흡수되고 있다.

0.001~20㎛ 입자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면역계의 대식세포를 통해 흉부 림프절, 소화관 내벽과 혈관 벽을 통과할 수 있고, 혈관에 잔류하기도 하며, 순환계의 전신 순환을 통해 간, 신장, 비장, 심장, 뇌를 포함한 2차 표적기관까지 도달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고, 호르몬 불균형과 발달 장애, 유전자 변이, 면역기능 저하, 염증 등 다양한 건강상 문제를 야기시킨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은 인간의 무분별한 이기심과 탐욕으로 훼손된 환경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키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작한다. 갈수록 심화하는 전 지구적 위기에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인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대응해야 한다.

탈(脫) 플라스틱 캠페인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생명 공동체의 사명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상의 운동이다. '플라스틱 사용이 이미 보편화 된 생활환경에서 과연 바이 바이 플라스틱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통해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유해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플라스틱 제품 소비를 스스로 줄이는 실천 방안을 주변에서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절제하기, 플라스틱 용기 음료 소비 줄이기, 배달 음식 소비 줄이기, 포장 음식 다회용기에 담아 오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비닐 대신 종이봉투 사용하기 등이다. 무엇보다 플라스틱 제품 사용 축소와 사용한 용기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해서 플라스틱의 감량과 재활용성을 개선시켜야 한다.

성도는 인류 건강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역습으로부터 창조 세계를 보호해야 한다. 이번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결과를 성찰하고,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나가길 기대한다. '탈(脫) 플라스틱'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 세계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돌보는 실천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실천들이 모여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아름답게 보전되기를 소망한다.

안연환 팀장
(사회선교본부
생명과 환경팀)

차세대 CGN 탐방 소감

내 꿈에 한 걸음 더!

2024년 1월 31일, 과천의왕공동체 11개 가정(총 35명)이 CGN을 탐방했다. 친구들과 함께 CGN 소개 영상을 보고, 퀴즈를 맞추고, 갓툰팀 소개를 들었다. 사실 갓툰이 애들 만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재밌었다. 갓툰 작가님이 캐리커쳐 해주신 것도 정말 마음에 들었다.

CGN에서 깨달은 것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주는 매체가 이제는 영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나는 어렸을 때 그림책으로 성경을 처음 접했고, 계속 책으로 성경을 읽었다. 그러나 이제는 영상으로 모든 걸 접하는 시대다. 우리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알려주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항상 'CGN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탐방을 통해 그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다. 광고를 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갓툰팀의 영상을 보며 그런 생각이 더 들었다. 그래서 나도 CGN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스튜디오도 봤다. 양재온누리교회를 다니는 내게 서빙고온누리교회는 친숙하지 않다. 그래도 파워스테이션 워십을 다니면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친숙한 곳은 경찬홀인데, 그곳이 바로 CGN 스튜디오였다. 경찬홀의 모습이 내가 알던 모습과 다르게 바뀌어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다.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앞에 자리를 잡고 앉는 순간, 가슴이 설레고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진짜 기분이 좋았다.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 딱 들어가서 '아, 이건 내가 있을 곳이다'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내 기분이 그 느낌이었다. 설렘을 가득 안고 음향실, 메이크업실, 제2스튜디오도 들렸다.

탐방을 마치고 맛있는 피자를 먹으러 갔다. 피자를 먹기 전에 탐방을 하면서 느낀 점과 CGN을 후원해 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기분 좋게 후원 약정을 결정했다. CGN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CGN 탐방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CGN 직원들에게 항상 응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다. 어린이와 청소년 미디어 선교사들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 나도 언젠가 문화 선교사로서 살아갈 꿈을 꾸고 있었기에 이번 탐방이 꿈을 다지고, 결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정세아 학생
(양재 파워웨이브)

글.그림 명난희

64.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나요?

자녀의 마음으로 퐁당! - 신앙교육

가장 좋은 세 가지 신앙교육 방법

최은영 교수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크리스천 부모가 자녀에게 꼭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다면 '믿음'이다. 그만큼 신앙교육이 크리스천에게 매우 중요하다. 신앙교육만 잘 이루어진다면 자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이 신앙교육이다.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잘 이뤄지기가 힘들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교육을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앙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파울러'다. 그는 신앙을 여섯 단계로 정의한 '신앙발달이론'을 창시했다. 제임스 파울러는 "유아기부터 성인 후기까지 신앙이 단계를 거쳐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신앙발달이론' 중에서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가는 발달 단계를 살펴보자.

청소년기 신앙의 특징은 관습적이고, 인습적이다. 관습적 신앙에서 발달하지 않고 머물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 반대로 성년기의 신앙은 개별적이며 성찰적이다. 관습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청소년기를 지나 자신의 신앙을 갖춰가는 성년기로 가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전래동화 같던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따라서 가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배운 대로 따라하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교회와 가정이 자녀들에게 바로 이것을 교육해야 한다.

첫째, 관습적이고 인습적이던 신앙이 개별적이고 성찰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생각하기'가 꼭 필요하다. 교회와 부모가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 질문하고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이 궁금한 것을 마음 놓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교회와 부모가 자녀들의 질문에 마음을 열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들이 생각해 볼만한 질문거리들을 던져줘야 한다.

한 아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게 왜 사실이죠? 그걸 제가 어떻게 믿죠?"라고 질문했다고 가정해 보자. 대부분 주일학교와 부모들은 '믿음이 부족하네', '믿음이 약해'라고 생각한다. 이 질문을 한 아이는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란 취급을 받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는 신앙에 대해 질문하거나 대화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자녀들의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와 부모에게 매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때 부모가 "어떤 점이 안 믿어지니?", "무엇을 더 알면 믿어질 것 같니?", "그 사실을 믿고 싶다면 엄마와 아빠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라고 묻는 게 좋다. 좋은 신앙교육은 믿음에 대해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신앙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신앙교육을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자녀에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즘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면 "너 아직도 교회에 다니니?"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회의 빛과 소금, 길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교회 다니는 게 자부심이 될 정도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교육이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부모 세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앙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성경을 통으로 가르쳐야 한다. 한 본문, 한 교리 중심이 아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와 가치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더 나아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오늘의 세상을 살도록 훈련해야 한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왜 친구에게 친절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질문들의 답을 성경의 핵심 메시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때 자녀들이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 성경은 존재 이유, 죽음 등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책이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신앙교육이다.

* 이 글은 기독 OTT '퐁당' 프로그램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12편 신앙교육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 OTT '퐁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시 51:4)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영화 〈밀양〉이 있었다. 2007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로 전도연 배우가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여 유명해졌다. 〈밀양〉에서 여주인공 신애는 유괴된 외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는다. 신애는 이런 절망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는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대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유괴범을 만나 그에게 용서의 말을 건넨다. 그런데 이 유괴범은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자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다. 이런 유괴범의 말에 신애는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유괴범의 뻔뻔스러움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큰 오해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다윗도 이 유괴범과 비슷한 뻔뻔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 같다. 〈시편〉 51편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충성된 용사 우리야를 죽인 죄악을 회개하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주께" 범죄하였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하니, 밧세바나 우리야에게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도 없던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였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 비록 나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을지라도 그 죄악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떳떳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던 것 같다. 자신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므로(삼하 12:13), 이미 용서받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용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밀양〉의 유괴범과 달리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더 깊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다.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자신의 어머니도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했다고 고백한다(시 51:5).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음과 살인의 죄는 용서하셨고, 이 죄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 이 죄가 용서되었어도 자신은 또 다시 수많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면죄부를 얻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다. 또한 죄책감을 벗어나는 심리적 도구는 더욱 아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도리어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구원의 시작이 된다. 구원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당연했던 자신이 죄가 싫어지고, 그럼에도 죄를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개는 죄에 대한 자유함을 경험할 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니라, 죄인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구원의 기나긴 길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밀양〉의 유괴범은 신애를 만났을 때 자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야 했다. 또한 신애의 용서에 감사하면서 신애의 상처에 공감하여 눈물을 흘려야 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이웃의 아픔에 함께 울고, 이웃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은일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대속

2월 19~25일
〈마가복음〉 5:16~16:20,
〈요엘〉 1:1~20

묵상포인트 1: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다.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쓴잔을 온전히 받으셨다. 그분의 죽음과 동시에 지성소가 열린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한다. 십자가로 완전한 대속과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한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희롱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간다. 골고다에 이르신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심으로 고난에 온전히 순종하신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눠 가진다. 세 시간 가량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을 요구해 새 무덤에 장사 지낸다.

묵상포인트 2: 십자가 죽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뒤따른다.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며,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린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간 여인들이 무덤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시골로 가는 두 사람에게도 나타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다.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사명을 따라 복음을 두루 전파한다.

묵상포인트 3: 요엘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해 전한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백성이 심판받는 날이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그분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취할 참된 회개의 태도에 대해 묵상하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며 회개를 촉구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는 메뚜기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먹어 치우는 재앙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백성은 자녀와 후세에게도 이 일을 전해 죄와 심판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땅의 소산과 사람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제사도 끊어질 것이기에 제사장들은 굵은베 옷을 입고 슬퍼해야 한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은 '여호와의 날', 곧 멸망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창고가 비고 곳간이 무너지며, 불이 초목을 사르고 시내가 마르니 가축과 들짐승들도 고통당할 것이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견디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 온유와 겸손, 인내와 희생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 힘쓰자. ▶로마 군인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탐욕으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 눈앞의 작은 이익이 아닌 예수님을 좇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자.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셨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한 영혼의 구원을 목표로 삼고 그를 위한 기도와 섬김에 힘을 쏟자. ▶요엘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회개를 촉구했다. 오늘날 죄악의 길로 향하는 이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자.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A형제를 위해서!

A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인도에서 온 A형제는 남양주M센터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된 일 때문인지 종종 술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A형제가 힘들 때마다 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고된 일에 지치고 힘든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힘주시도록, 그가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A형제의 아들 나얍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상에 누워있는 나얍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나얍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건강이 회복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나얍의 온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해주십시오.

A형제의 가정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멘토가 멘티에게

나를 단련시키고, 쓰시는 하나님!

"교회에서 만난 친구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친구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품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30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크리스천 상사와 고객, 동료들을 많이 만났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로 인해 마음이 어려워지고, 분노하는 일들이 있었다. 옳지 않은 사고나 신념, 잘못된 업무 관행임을 알면서도 스스럼없이 행동하는 모습, 관계 속에서 본인의 사익과 출세만 지향하고,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마음이 더욱 어려웠다. 그런데 내 마음속 괴로움과 갈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회가 되었다. 세례받은 이후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은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나의 회사 생활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척박한 근무 환경이었다. 나는 독실한 크리스천인 사장님의 응원에 힘입어 신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성공하면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주역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사장님의 사익이 우선되는 경영철학과 재무, 불합리하고 정직하지 못한 회사 경영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회사 생활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정든 회사를 사직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거짓 음해와 모욕, 나를 괴롭히기 위한 법적 소송과 취업 방해 활동까지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취업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지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본으로 도망치듯 떠나게 되었다.

사장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잠을 못 이루던 그때 일본에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났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도움으로 나와 아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나를 핍박했던 그분을 용서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생기면서 인생이 달라졌다. 어릴 때부터 꿈꾸던 미국회사에도 취업했다. 그곳에서 일과 신앙생활 모두 행복하고 보람 있게 했던 값진 경험을 하면서 나와 가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사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업무를 배우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큰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분과 헤어지는 힘든 과정을 겪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용서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분도 지금은 굴지의 대기업을 이루고, 한국 산업의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분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친구들과 자주 부딪치고, 마음이 어려운 청년들이 많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탐색하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거나 혹은 배신감을 느껴도 괜찮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치유의 첫걸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나 동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공감과 조언을 얻는 게 큰 위안이 될 것이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때로는 그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고,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다. 조용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구하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앙의 친구나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하나님은 시련이나 갈등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고, 쓰신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친구 또한 귀하게 쓰시는 분이다.

/ 이상호 멘토(여호수아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도 있지."

한 소통 전문가가 일상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다. 이 말을 계속 되뇌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안정되고, 상황을 통제할 여유를 갖게 된다. 살면서 의사소통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기분 나쁘게 말하거나 이유 없이 공격적으로 말을 뱉는 유형의 사람들이다. 상대의 마음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려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몹시 상한다.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단계를 넘어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통제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이 튀어나온다. 세미나에서 배웠던 고상하고 공감적인 대화 방법이 머리에서 사라져 버린다. 의사소통을 배우기 전의 거칠고 전투적인 대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대상과 격렬하게 말싸움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과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고 나면 손해는 자신에게 고스란히 남게 된다. 싸운 시점이 아침이라면 그 하루를 완전 망친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힘들지만 삶의 많은 영역에서 선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서적으로 가장 건강하다. 삐뚤어진 말로 공격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행동의 자연스러운 진행 방향이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하게 다투고 나면 자신의 마음에 남는 게 긍정적인 감정과 마음이 아니다. 좌절감과 분노가 남는다.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건강하고 성숙하게 삶의 주도권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결과가 분명 다를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싸울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분명히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상대방이 내던지는 감정의 쓰레기를 받지 않을 것인가?' 등의 선택에서 주도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유익할 것이다.

소통 전문가는 입이 거칠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과 대면했을 때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부정적 감정의 쓰레기를 마음에 받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삶의 주도성을 발휘한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냉정하게 표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주도성을 가진 표현을 한다. 물론 공손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전달했더라도 이미 마음이 꼬여있거나 타인을 무시하는 게 일상이 된 사람은 태도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주도성은 성숙을 추구해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성품이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수준의 의사소통 기술이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다음 여전히 태도의 변화 없이 쏘아붙이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말이 통하면 다행이지만, 전혀 통하지 않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도 있지"라면서 포용적으로 상황을 수용한다면 상황이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 자신이 손해를 보고, 무시당한 것이 화가 나지만, 포용적으로 상황을 수용했을 때 따라오는 이점이 있다. 전보다 성숙해진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망치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가족은 함께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주고받는 수많은 상처가 있다. 외모를 가지고 장난스럽게 비하하는 말을 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다. 놀랍게도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편하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은 함께 살면서 행복한 기억도 갖고 있지만, 대못이 박힌 것처럼 아픈 말과 상대방의 무례했던 행동을 마음에 두고 살기도 한다. 배우자가 했던 말 중에 아팠던 말을 마음에 두기도 하고, 양가 부모 중에 서운하게 했던 말을 마음에 담아두기도 한다. 간혹 만나는 형제나 친척 중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이나 섭섭했던 말을 상처로 담아두기도 한다. 상대가 누구든 고약하게 했던 말과 무례한 행동으로 받은 상처와 고통에 끌려간다면 삶이 더욱 우울하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처에 함몰되어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

상처를 줬던 상대방과 기분 나쁜 기억을 지우기 어렵다.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어쩌면 내 삶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은 아픈 과거 경험까지 포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과거 누군가 했던 가슴 아팠던 말과 행동에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도 있지"라면서 가족 구성원과의 부정적 경험을 포용적으로 다시 볼 수 있다면 가족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다.

사람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모습이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타나기 쉽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말과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다. 한결같이 좋다가 어떤 특별한 시점에 자신의 모난 부분이 표출될 때가 있다.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시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파괴적인 말과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갈등 증폭의 시기에 발생했던 사건에 여전히 끌려다니면 삶이 안타까움의 연속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부정적인 기억을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가족 관계와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을 늘 괴롭히는 가까운 누군가의 말과 행동, 표정이 가슴 깊이 아리게 남아있다면 불완전한 상대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게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기후 위기 극복할 실천 매뉴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에두아르도 가르시아 글 | 사라 보카치니, 매도스 그림 | 청아람미디어 | 16,000원

지금 세상은 기후 변화로 심각한 환경위기에 처해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 온도가 섭씨 1.2도 상승했다고 한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초대형 태풍, 수십억 그루의 나무를 불태우는 산불, 때 아닌 가뭄과 홍수 등의 재앙이 온실 효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나는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이 더욱 극심해졌다.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북극과 스위스 알프스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태평양과 대서양 한가운데 프랑스 면적의 3배나 되는 플라스틱섬이 만들어졌다. 우리 혈관에도 이미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명절에 수거해 가지 않으면 산더미처럼 쌓이는 폐기물을 보면서 저 쓰레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숨이 쉬어지기도 한다.

온누리교회가 사순절을 맞아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병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바이 바이 플라스틱'을 주제로 캠페인을 한다. 늘 이런 캠페인을 벌이면 '나 혼자 한다고 과연 지구가 살아날까?'라는 의구심을 갖지만, 개개인의 생활에서 작은 습관이 일상이 되고, 집단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아주 큰 효과가 일어난다. 무엇보다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막연한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서점에서 발견한 참신한 그림책 한 권이 우리의 목적에 딱 부합할 것으로 여겨져 추천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랫동안 생태환경을 연구한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와 아동서적 전문디자이너가 합작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완벽한 실천 매뉴얼을 만들었다. 사순절 기간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읽고, 실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허원희 목사
(과천의왕공동체)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가정사역
강소애 유경은
원대로 김재영
이현정 문진희
임상범 안준선
정겨운 연미영
정윤선 이상은
정재효 황 진
황희정 나지원

강서
권현아 조문희
유은정 이호진

강촌
박혜선 현민교
백재화 최원미
조용인 목준균
최장춘 박미룡

고양은평
서경수 정탁영
손기업 이윤학
이미양 양미란
장소연 김선경
조현신 김주경

관악금천
유정임 문지영
장민지 백용기
조병선 박인숙

광명
이선화 남궁현선

김포
박근범 김광하
박연주 이아영

노원
강미라 류선희
김창경 민영석
오윤정 강선미
장선미 황한나
정수강 기세충
정수호 강정구
홍수진 김인옥

동대문중랑
김남응 장관수
김승은 심윤경
김혜인 이민신
손연옥 손은경
송 숙 김정희
유소현 김정연

동작
노용진 양성식
류성준 류석형
박정태 홍영표
윤은경 김성미
이경숙 이금자
임인순 곽도이
태은숙 원혜선

마포
박기한 심남주
이수영 이정은
최하은 허진경

서대문
곽현주 서영주
노유진 장은정
유한승 윤상일
이경진 김서현
이병협 왕규호
조태일 전용우
최원석 김재호
황유진 조현옥

서빙고
김교현 박복응
남영욱 김윤정
주형래 장문성
최승혁 이완복

성동광진
강다연 이규민
김성겸 이영훈
김인숙 서경교
김하영 최동미
도례미 이강래
박지현 임경희
송영준 김진환
심민영 이경자
윤덕수 국원석
윤승연 장은주
이용주 이경자
이진광 강상우
정연준 최봉주
정자경 윤정희
황지원 강해숙

성북
김정하 홍선경
문은국 이종우
손승환 김종석
오민경 임미정
이은숙 김인애

신용산
김예슬 박영정
정유미 박희경
최종범 강길환
한윤경 김영미

양지 동누리
김현원 박미정

양천
남연경 정경미
우희용 김경우

영등포구로
김성묵 김민수
김영민 류현진
성우용 이재영
안미선 김성민
이성은 한지영
조미정 김경숙
허영화 김영경

용산
김기영 정도연
박명주 전영미
박은정 이명선
이은주 서정순
이지연 이지현

이수
서조은 류현미

이촌
김현태 허창우
박선주 신순목
박정희 박영미
손민정 박미키
원미연 신순목
이윤정 손소연
이은진 이해지
임윤선 고덕희

일산파주
김성환 오창화
유 미 최선희
이현정 김진아

중종로
김효숙 이연주
손혜정 김지은
이성진 남관우
이승재 조영선
임진수 조득용
정기순 이연주
최자명 조재관

찬양사역
기현주 정유정
박혜준 엄희라
최명길 서영희

특별한초대
이지현 최주희

한강
김이수 전진국
주능정 이응준

공동체없음
김동연 김현철
김성희 안숙향
김예진 박미숙
김의찬 허 식
박귀례 최혜진
박영화 엄애례
박주영 성혜정
박지현 이정은
송준용 김준하
양희승 김진용
이동희 오정옥
임동현 최호림
장경희 이경선
정연상 양 웅

OCC
이상아 노숙희

S브릿지
김수진 홍경화
남영우 유영석
박은선 조은숙
오소영 장은정
오제훈 김민욱
이동훈 안연환
이연경 강지원
정명희 김주영
정주일 박정훈
하소영 이수정
한화정 이수정

양재

강남A
강수진 허 란
강영임 남수경
권순철 손호영
김인숙 김정순
김제임스 고석빈
박수경 신영미
서준우 임동연
선원정 전애리
손수진 김화인
안희원 이창배
이현주 이미희
전보영 김소헌
정소남 이하정
정옥재 홍문식
허보경 안현남
황정미 김신희

강남B
강세현 김정원
곽행자 안연숙
김정연 이혜윤
김충재 이종환
박현정 최정은
우선영 정은희
유정열 이두열
이은정 김현정
이진옥 한성실
장윤혜 강인자
조미형 구연미
조정화 김정원
최혁준 정영현
한 나 홍윤정

강남C
김소희 박영희
김지희 윤선진
문선교 박동아
박정훈 전경무
신국찬 백종욱
양대용 박경열
양승현 권오철
유성준 최종순
이경숙 유은경
이주희 홍성임
이현주 홍민영

강남D
강보람 민연숙
강소미 이정민
김동영 김여환
김동은 김세영
박용일 한규석
송 란 김은아
이기쁨 이주연
이창섭 윤병수

강남E
강주현 기정민
김유정 홍지숙
김지원 윤경옥
김지혜 황수현
박세온 홍성희
배은희 이경란
서수희 곽혜정
이성우 김의석
이진영 장봉석
홍종기 박환성

경기A
김지선 김제니
박장희 심인대
배부일 서병재
손은희 박주운
임경환 조래철
정선우 김기덕

과천의왕
김지유 박민경

도곡
강은혜 전선형
김병주 이기현
박승엽 정혜선
박지현 한종철
박형룡 김태문
사명희 조경숙
안재홍 조연익
이연숙 임봉자
이진영 서지연
전희정 석지영
천예원 이민영
홍현숙 이수진

분당A
길보경 우승엽
김아영 김미나
김예지 김수연
박영주 홍경미
이수정 조성임
황주은 김명선

분당B
김재한 조병현
박윤희 조은미
윤용준 이경욱
이재경 이규영
조경래 장우현

서초A
강수화 김성애
류수진 김성애
시윤정 유의란
안향선 김나영
오흥천 이동창
이성오 지상목
정초롱 신미경
황성원 박태성

서초B
김정남 박정열
유지민 정수헌
이용규 이흥재
임동민 정회석

서초C
김나신 김미라
김완선 황희정
문성희 송영희
송영혜 주명숙
신영미 김명숙
신철호 신상만
이상희 손현진
주하영 인치영
한은진 최현숙
황은정 김선민

서초D
나혜린 정성혜
손예린 이 연
정민수 박도준
채 민 성현정

송파A
박준서 황진기
박지애 김은미
윤성용 권형민
이경혜 박진희
최성일 석효수
최진희 이승희

송파B
권나영 인성문
김영복 홍인덕
김향미 이상림
김현숙 박수경
신상순 이부경
안성은 김성태
유 준 김재영
유희순 박선희
정양진 조다남
주은진 안혜민

양재A
김명효 이경란
여정례 이충희
이영채 명제팔
이은희 이영선
정경옥 이영선
채규열 박순호

양재B
김덕래 조태희
김종오 최재원
윤주영 김정순
이선정 최진설
장일환 김영광
장준호 김선근
최재경 김애란

푸른누리
구본우 이주성
김승욱 김진형
배은경 이정애
서정훈 김진홍
손영국 이병후
이효선 양현주
전현준 서동윤
조종성 양정환
조채린 이미경
한도경 박현정

공동체 없음
최예정 최혜정

Bridge33+
금은규 홍원미
김지연 이성신
김현기 강기주
박경배 김재언
이새롬 조주영
이현아 이지은
장경애 양미영
장주영 장지원
장지현 고순영
정도원 이광표
주미순 김미선
최상규 이수준
최태웅 김신석
최훼린 정지연

Harmony
김경은 강상명
양혜선 배윤정

Point5
김혜민 김효선
서리라 윤세영
심현아 김유지
이선근 윤희원
한지희 오지현

대청

갈렙
신경훈 한복규
이지안 이은영
허예상 윤 선

여호수아
강민지 황인정
강석현 김태주
기은혜 홍주화
김도현 김기훈
김수지 송희자
김승현 전필수
김영글 김두환
김예원 정효정
김원주 윤상우
김은비 박선향
김은지 원정림
김정현 서수정
김주영 황연신
김진유 임주영
김학선 강정호
김한빛 김은영
문일웅 정연웅
민경민 김정훈
박고은 김경실
박서혜 김이정
박선아 박선영
박지용 최정윤
배찬미 이숙인
변지영 석현수
서예진 김은경
송영광 김선주
송영욱 김재필
심혜림 박경란
안소영 김태은
엄정한 정지채
오지안 황연신
윤남희 손영하
이나경 우현정
이연주 이현숙
이영철 박종선
이예은 배한나
이은영 안지영
이은지 최은영
이주연 석조은
이지인 박준민
임재훈 백종욱
장동원 박승관
장아린 전경화
장재훈 하태승
전신승 이혜옥
정수영 이승곤
정효선 금현정
최선경 황소엽
최윤선 정은실
허가연 김선희
현준원 이경아
홍성주 송진호
황상규 신승국

요셉
권지현 최아름
김슬기 오선영
이준범 김동원

하늘
김민성 김기정
김태희 김수지
최인헌 홍호식
최종현 노지준
최지은 김민아

허브
구지애 윤 경
김민우 김용상
김수지 이신야
김승우 길성환
김은총 도기숙
김재현 김윤욱
김희정 조영미
박성배 고원규
백재혁 이종환
유제희 손지영
윤수연 금현정
윤현수 도영석
이상협 박재민
이예지 신경희
이주은 이지현
이준서 김정은
이하영 박영미
임성주 김미정
정유림 최인경
한유민 황세누
황용빈 이영훈

CHPlus
신유정 이연숙

J4U
곽하능 김정욱
김지윤 문시원
김혜린 이소윤
김효정 이지은
송지원 이미종
안소진 이혜미
이보라 박정혜
이신향 박기호
조예형 윤지영
최이영 정 희
한창경 김재우
한혜진 최문아

Pole2
박수현 권수라

SNS
김단비 진미형
김종빈 이명열
나예현 강은주
마태광 백경숙
맹선균 백승지
박요한 백웅선
박재원 남지연
박해준 강을구
박혜리 홍정화
변지웅 권남헌
손혜림 심현옥
신윤지 이연희
엄지현 송효진
윤지수 김현정
이슬기 고지아
이슬기 임선주
이승연 윤정희
이유나 성지은
이태호 이장웅
임지은 박가경
한지윤 조윤세
허연우 조성호
홍승표 이종훈

W
배은지 강은혜
변재란 황지원
유정엽 정용모
장소진 전태영
최호진 박현웅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2월 18일(주일) 서빙고 3부 예배, 양재 2부 예배
서빙고 수료대상자: 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 양재 사랑홀
대상자: 23년 9월 1일~24년 2월 6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서빙고

김광하 장로반
강희근
권성옥
김범기
김유빈
김은경
김현정
박영환
부연선
서영민
송동욱
이경희
이광철
이리나
이미희
이시운
이준환
이진수
이진열
이해원
임현섭
정남규
정지영

이비오 목사반
김봉주
김선주
김재광
김진선
류지연
박승용
박영희
사미순
양지원
오연석
이윤정
이재윤
이정훈
이주현
이지연
임주영
장노옥
정혜경
최고야
최정호

양재

김명현 장로반
강성혜
곽 철
김경연
김범호
김봄남
김신천
김은경
김인향
박경철
박민아
박선주
박태순
신인석
이곤수
이관우
이복희
정회승
홍용희

김철주 장로반
강신애
김선규
김성진
김은혜
김인하
김진실
남 현
박예지
박종일
양지연
여선화
유 준
이소정
임채원
장인경
장현민
전은경
정경환
조순현
주선희
최신애
최정은
표은정
허해란
황용남

박동현 장로반
이선경
조지은
홍지연
홍진숙

조동욱 목사반
강배임
강상안
고수진
김경선
김대은
김상희
김선옥
김수양
김유정
김은욱
김은정
김진화
남준상
노민정
박숙조
박준형
박혜림
서남서
성정화
송유리
신지현
심재란
오수린
왕인희
이계영
이나라
이부희
이원석
이종원
이지영
이지은
이지은
임치욱
장경란
전장섭
정세진
정재웅
조준희
조해덕
최유미
최인경
추선미
하은선
한미성
황선주
황현희
LEE JONG HEE

‘콘텐츠로 세상에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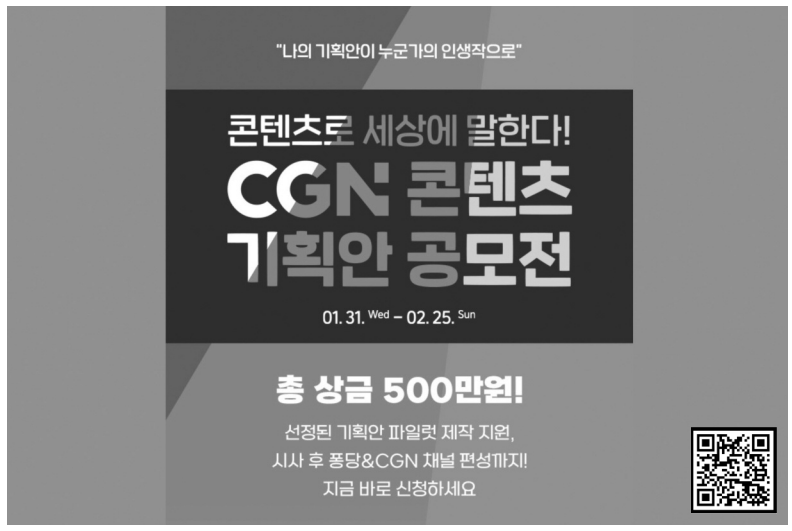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개최

CGN에서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콘텐츠로 세상에 말한다!’를 개최한다. 주제는 ‘넌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복음 콘텐츠’, ‘인물 팔로우 형식 콘텐츠(각 분야 업적을 남긴 신앙인의 삶)’, ‘자유 주제’다. 기독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크리스천이나 넌크리스천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개인 또는 팀(4명 이내)으로 참여하면 된다.

CGN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기획안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다음 2월 25일까지 CGN 홈페이지나 포스터 QR코드로 제출하면 된다. 기획안에는 기획 의도, 목적, 캐치프레이즈, 콘텐츠 구성, RT, 편수, 시청 타겟 등이 꼭 들어가야 한다.

콘텐츠 공모전 기획안 입상 최종 발표는 3월 중순에 한다. 수상자에게 개별 연락한다. 공모전 입상 기획안은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시사회 이후 기독OTT 퐁당 및 CGN 채널에 편성한다. 파일럿 제작 및 시사는 4월 중에 할 예정이다. 대상(1명) 300만 원, 최우수상(1명) 100만 원, 우수상(1명) 50만 원을 수여한다. 문의:02-796-980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연말까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을 돕는다. 튀르키예 이스겐데룬과 하타이 지역에 올해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식료품, 방한용품, 학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번에 약 1천 2백 가정, 주민 5천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스겐데룬과 하타이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과 관심이 끊긴 지역이다. 이스겐데룬에서는 무너진 건물 잔해를 정리하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텐트촌이 컨테이너 마을로 바뀌긴 했지만,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줄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타이에서는 아직도 주민들이 텐트에서 생활하거나 무너진 집 일부만 보수해서 지내고 있다.

문의: 02-2271-2246

/ 홍하영 기자

양재 새가족

일시: 2월 18일 / 시간: 15:30
장소: 양재 드림홀

강남A
김유선
박성섭
신성민
이혜련
정윤혁
정효숙

강남B
강하연
김미중
김영옥
김용란

강남C
김현영
서영숙

강남D
김성은
양병욱
유종민
이수아
임정애
조휘성

강남E
김옥진
변병숙
양윤성
양윤옥
임희성
현대흥
홍지명

도곡
송미희
이연숙
한상근
홍현정

분당A
김선숙
심희자
정진옥

분당B
김광진
박 순
박인숙

서초A
김선애
박경준

서초B
윤창연

서초C
신연승
오유경
정민재

송파A
민명숙
이효종
장동택
전민숙

온누리 호스피스학교 참가자 모집

매주 목 오전 10시 서빙고 비전홀

2024 온누리 호스피스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월 7일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

온누리 호스피스학교는 질병과 사별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돕는 사역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사별가족에 대한 이해와 동행’ 등을 주제로 김재석 목사, 김도봉 목사 등이 강의한다.

계좌: 하나은행 573-910007-15004
(예금주: 호스피스)
문의: 010-3412-7966

한국어 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3월 2일부터 매주 토 오후 7시 온라인

한국어 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일(토)부터 5월 11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강의한다. 1주차와 10주차는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현장 강의를 한다. 신청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한국어 선교학교에는 한국어교습을 통한 이주민 선교에 관심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어선교 필요성과 전략, 한국어 선교사의 정체성, 한국어 발음교육론, 한국어 어휘교육론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6652-3596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 개강

3월 9일~4월 20일 서빙고 한동홀, 양재 두란노홀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이 오는 3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어진다.

서빙고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한동홀에서 열린다. 3월 16일까지 아이스쿨(iscool.ionnuri.org)에서 참가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교재비 포함).

양재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3월 9일까지 아이스쿨(isc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교재비 별도).

문의: 서빙고(010-6637-7540),
양재(010-7228-5798)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있다.

상반기 개강예배

서 빙 고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2월 20일(화)	특별한초대	시온홀	오후 6시
2월 22일(목)	양천	비전홀	오후 6시
2월 23일(금)	여의도	한동홀	오후 6시
2월 23일(금)	이촌	시온홀	오후 6시
2월 24일(토)	노원	천보산민족기도원	오전 10시 30분
2월 27일(화)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오후 6시
2월 27일(화)	가정사역	시온홀	오후 6시
2월 29일(목)	OCC	두란노홀	오후 6시
2월 29일(목)	동대문중랑	한동홀	오후 6시
2월 29일(목)	마포	비전홀	오후 6시
3월 3일(일)	고양은평	예수인교회	오후 6시
3월 5일(화)	관악금천	두란노홀	오후 6시
3월 5일(화)	서빙고	한동홀	오후 6시
3월 5일(화)	성북	비전홀	오후 6시
3월 5일(화)	이수	시온홀	오후 6시
3월 6일(수)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오후 8시
3월 7일(목)	강촌	두란노홀	오후 6시
3월 7일(목)	성동광진	한동홀	오후 6시
3월 7일(목)	동작	비전홀	오후 6시
3월 8일(금)	강서	여의도이룸	오후 6시
3월 8일(금)	한강	두란노홀	오후 6시
3월 8일(금)	중종로	한동홀	오후 6시
3월 8일(금)	신용산	비전홀	오후 6시
3월 8일(금)	S브릿지	시온홀	오후 6시
3월 8일(금)	찬양사역	성가대실	오후 7시
3월 9일(토)	일산파주	일산파주비전센터	오후 6시
3월 9일(토)	용산	두란노홀	오후 2시
3월 9일(토)	김포	행복한안디옥교회	오후 4시
3월 15일(금)	서대문	두란노홀	오후 6시
3월 23일(토)	광명	크로앙스	오후 4시

양 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2월 18일(일)	Bridge33+	하용조홀	오후 2시 30분
2월 23일(금)	송파A	드림홀	오후 7시 30분
2월 27일(화)	양재B	화평홀	오후 7시 30분
2월 27일(화)	분당B	온유홀	오후 6시
2월 27일(화)	서초A	드림홀	오후 7시
2월 29일(목)	강남B	화평홀	오후 8시
2월 29일(목)	양재A	드림홀	오후 7시 30분
3월 2일(토)	송파B	화평홀	오후 5시
3월 2일(토)	분당A	드림홀	오후 5시 30분
3월 3일(일)	푸른누리	도곡교육관 기쁨홀	오후 2시
3월 3일(일)	하모니	두란노홀	오후 4시 30분
3월 5일(화)	서초B	기쁨홀	오후 6시 30분
3월 5일(화)	강남C	드림홀	오후 8시
3월 7일(목)	서초C	화평홀	오후 8시
3월 7일(목)	강남D	드림홀	오후 8시
3월 8일(금)	강남E	화평홀	오후 7시 30분
3월 8일(금)	서초D	온유홀	오후 8시
3월 8일(금)	강남A	드림홀	오후 7시
3월 8일(금)	Point5	도곡교육관 온유홀	오후 8시
3월 9일(토)	도곡	화평홀	오후 6시
3월 9일(토)	과천의왕	드림홀	오후 1시
3월 9일(토)	경기A	안산M센터	오후 3시

캠퍼스

3월 9일(토)	부천 믿음	부천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4시
3월 2일(토)	부천 소망	부천온누리교회 비전홀	오후 6시 30분
3월 9일(토)	부천 사랑	부천온누리교회 비전홀	오후 4시
3월 9일(토)	부천 희락	부천온누리교회 비전홀	오전 10시 30분
3월 8일(금)	부천 화평	부천온누리교회 비전홀	오후 8시
3월 7일(목)	수원 북누리	수원온누리교회 경찬홀	오후 8시
3월 7일(목)	수원 동누리	수원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8시
3월 8일(금)	수원 서누리	수원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8시
3월 8일(금)	수원 남누리	수원온누리교회 비전홀	오후 8시
3월 8일(금)	대전 동누리	대전온누리교회 누리홀	오후 7시 30분
3월 8일(금)	대전 서누리	대전온누리교회 비전홀	오후 7시 30분
3월 8일(금)	대전 남누리	대전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7시 30분
3월 8일(금)	대전 북누리	세종교육관 본당	오후 7시 30분
3월 6일(수)	남양주 연합	남양주온누리교회 본당 3층	오후 7시 30분
3월 3일(일)	평택 연합	평택온누리교회 본당 2층	오후 2시
3월 8일(금)	인천 연합	인천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8시
2월 23일(금)	강동 연합	강동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8시
3월 2일(토)	양지 연합	양지온누리교회 박모세홀	오후 2시
3월 3일(일)	영종공동체	영종온누리교회 백향목홀	오후 2시

온누리 BEE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온누리 BEE 아카데미 2024년 상반기 기초 및 심화 과정이 개강한다. 기초 과정 8개반과 심화 과정 5개반을 개설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이나 BEE KOREA 홈페이지(beekorea.org)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스쿨 일정은 하단 〈표〉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10-6221-1028

기초 과정/8개 반

구분	요일	개강일	시간	장소
대면반/현장강의	월요일	3월 4일	오전 10시	부천 꿈아이홀
	월요일	3월 4일	오전 10시	양재 러빙핸드
	화요일	3월 5일	오전 10시	서빙고 선교관 202호
	화요일	3월 5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선교관 202호
	목요일	3월 7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지하 102호
비대면반/온라인 실시간	일요일	3월 3일	오후 7시 30분	Zoom
	월요일	3월 4일	오전 10시	Zoom
	월요일	3월 4일	오후 7시 30분	Zoom

심화 과정/5개 반

구분	요일	개강일	시간	장소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	월요일	3월 11일	오전 10시	서빙고 누리홀
교회사 1	월요일	3월 25일	오후 7시 30분	Zoom
하나님의 성품	금요일	3월 15일	오전 10시	서빙고 선교관 202호
마가복음	토요일	3월 9일	오전 10시	양재 JDS홀
마가복음	토요일	3월 9일	오전 10시	서빙고 아론홀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권용갑
길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종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목 윤마리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효 정현석
정회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청훈
한화수 한충희 허원희 황신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종 신주용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임동현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황유일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은 랜디빠당줄렉스
마주마누룽 박씨마 백승현 비 컬
서영철 싱루아마놉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톨즈 이강혁
이민영 이아르뚜르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량 존 굴레이즈 차제이미
최정현 허효경 황연신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명주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구길모 권대식 권예람
권평화 김가희 김기태 김디모데
김동규 김동우 김만순 김미리
김민수 김승희 김영신 김예닮
김예찬 김요셉 김지선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현경 김홍미
나가노 마사토 남 혜 문수진
문진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훈 박요한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의력 방예린 서예찬
서혜진 손위결 송영호 송선애
심은섭 안류택 양현모 염경덕
오성광 오성민 오예원 우승희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윤석무 윤조현 윤종연 윤혜진
이나단 이도열 이동준 이미진
이민규 이상은 이선혜 이소라
이시하라 노리코 이예찬 이은미
이재용 이진수 이정빈 이정민
이주영 이준영 이지영 이창모
이태호 이 한 이형준 이휘영
임경미 임노완 임진숙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정기은 정상원
정성민 정연영 정요한 정은영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최강호
최규종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명훈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 원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영국 박영태A
박영태B 박용국 박우형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흥균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석우 운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상덕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웅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항진 조희동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광수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황영옥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시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종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범 고다이라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태일 곽희준
구자엽 권순형 권오습 권오혁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옥
김상균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신원 김영관
김영손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기
김용호 김우호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학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창원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겸
김형석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화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경한 노기홍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한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한 박 현 박현규 박형민
박흥선 방찬종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현 성광제
성주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래
손태용 송기선 송동섭 송종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재영 신철우
신학철 신현승 심길섭 심천보
심효무 심희돈 안동혁 안상헌
양상식 양 웅 양성철 양준홍
양춘경 양충식 양현열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성훈 오승탁
오이식 용내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일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율 이상준 이상혁 이석일
이성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장 이은일 이인용
이자형 이재광 이재춘 이정구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찬주 이풍우 이태열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채남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석순 정연식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주성대 주재량
진종구 차춘근 최민철 최봉림
최석민 최성완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상진 하주헌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우 한왕석
한필규 함일성 함정철 허 경
허대행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승우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성주 황윤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홍순직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경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경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에셀 노성희 노소라 도은경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경진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균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희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탁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박태영
심상현 이민욱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상훈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정운 김진우 김창식
김향선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심제헌 심형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영순 이경호 이미령 이성은
이성원 이승윤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천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최성석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성은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요안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원유미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용기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천 정선진
정은숙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코바야시 메구
하여진 하청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중수 우승호 윤영오
이광철 이문호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택 성헌제 손정래 신솔문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상헌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최경주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헌식 오명진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진용 김홍규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결혼

2월 24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고 김진문, 윤영옥(드림교회 집사)의 아들
김기용(온누리교회)
강승태, 이남이(온누리교회 집사, 집사)의 딸
강다연(온누리교회)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모집
내용: 식사, 밑반찬, 안부 확인, 돌봄 정기 지원
대상: 용산구 거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문의: 박민정 사회복지사(02-794-6100)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원어민 강사 모집
내용: 서초쉼터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칠 원어민 영어 강사
분야: 영어회화, 여행영어, 실생활 영어
문의: 유정선 사회복지사(02-6953-1833)

재정

온누리교회앱의 헌금 메뉴에서 모바일헌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헌금 특징
-이체 수수료 무료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하여 사용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2/2(금) 강남E 오영은 집사 시부상 고 김성범
2/3(토) 강남B 조현심 집사 부친상 고 조군선
2/4(일) 서초C동체 전정원 성도 부친상 고 전종혁
2/6(화) 강남B 이유간 집사 부인상 고 임재희
2/6(화) 분당A 최종란 성도 부친상 고 최병대
2/8(목) 강남A 최혜진 성도 모친상 고 신영애
2/9(금) 양재A 김영숙 권사 부군상 고 이화중
2/10(토) 강남B 조미혜 권사 부친상 고 조명호
2/11(주일) 동대문중랑 고 이용옥 권사
2/11(주일) 일산파주 김광자 권사 남편상 고 박민흠 집사
2/12(월) 서빙고 고 황충자 성도
2/12(월) 강남D 이재영 성도 부친상 고 이양희
2/13(화) 한강 박진영 권사 모친상 고 양옥순
2/13(화) 이수 신광필 집사 모친상 고 서정자
2/13(화) 여의도 박인선 성도 모친상, 김석환 성도 빙모상 고 김명선
2/13(화) 이촌 최지영 집사 부친상 고 최상락
2/14(수) 하모니 최은희 성도 부친상 고 최남산
2/15(목) 강촌 조항집 성도 모친상 고 김복동
2/15(목) 양천 육희정 성도 부친상, 강정희 집사 빙부상 고 육동환
2/15(목) 일산파주 고 한숙영 권사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김예은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Fondant 3rd Anniversary

총 가입자 145,000여 명, 35,000개 이상의 콘텐츠

퐁당, 을 담다

퐁당, 복음 을 담다

퐁당 오리지널, 영화, 키즈, 성경, 양육까지 무료로 시청 가능한 복음 콘텐츠

퐁당, 선교 를 담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는 10부작 다큐멘터리

퐁당, 선물 을 담다

퐁당 속 섬네일에 숨어 있는 캐릭터를 찾아 '캡쳐'해주세요.
찾은 캐릭터를 퐁당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숨바꼭질 기간 2월 15일(목)~3월 7일(목) 응모 기간 3월 8일(금)~15일(금)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

퐁당 다운로드

3주년 페이지